

도덕과 수업에서 영상학습 매체 활용의 윤리 교육적 함의

이종흔(李鐘欣)*

논문 요약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날로그 논리 기반의 문자 매체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논리 기반의 영상 매체 위주 사회로 급격히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형태의 변화와 같은 표피적 차원을 넘어 심층적 가치혁명이 동반되고 있음을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영상매체 이용의 저변화에 따른 윤리관의 변화가 지엽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총체적 성격의 것이라면, 그러한 경향이 청소년들의 가치관단과 도덕적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도덕 교육론적 차원의 대응적 고찰은 있어야 할 것이다. 논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덕과 교육론 모색의 한 방안으로 학생들의 가치의식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 영상 매체 중심의 도덕교육 방법 모색과 그러한 방법적 접근이 청소년들의 가치형성에 미칠 영향력을 고찰해 보았다. 즉, 본 연구는 도덕과 교육의 발전적 방법론 모색에 있어 디지털 영상매체 활용이 도덕과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주는 함의와 가치론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도덕과 교육에서 아날로그 논리에 기반을 둔 문자 매체 중심적 접근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논리 기반의 영상 매체 중심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통합적 접근에 의한 정의적 가치 함양에 있어 영상매체의 활용 가치를 고찰하였다. 셋째, 통합적 접근을 위한 영상 매체 중심적 접근의 부작용에 관한 가치론적 견지의 평가 등을 분석하였다.

- 주제어 : 아날로그 논리, 문자매체, 영상매체, 생활확대경원리, 정의적 가치, 통합적 접근, 다원적 문해, 총체적 즉각성.

* 부산대학교 강사

I. 서론

뉴 밀레니엄(New Millennium)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기존의 지배 매체였던 문자 중심의 공동체로부터 영상 위주의 공동체로 급격히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아톰(atom)의 원자적세계관과 아날로그(analog) 논리에 기반을 둔 문자 매체를 대체시키고, 비트(bit)의 디지털(digital) 논리에 근간을 둔 영상 매체 주도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 영상 매체 중심 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한 매체 기술의 변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환경의 근본적 변동 즉, 우리 삶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전반에 걸쳐 일대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단적인 징후는 인문학과 예술 및 자연과학, 그리고 공학 등 전 학문 영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실적 인식과 당위적 가치 전환의 중심에 디지털 논리 기반의 영상이 자리잡고 있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삶 환경의 대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통일된 인식은 아직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이분화된 양극적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 영상 이미지의 보편화를 단순한 쾌락의 원천이나 윤리적 결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비판적 견지이며, 다른 하나는 디지털의 비트 신호가 만들어내는 영상 자체에만 경도된 채 그 화려한 환상적 이미지를 테크놀로지의 측면에서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날로그 논리 위주의 문자 매체로부터 디지털 논리 중심의 영상 매체로의 환경 변화를 우리 삶의 총체적 질 향상이라는 차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환의 저변에 깔려있는 본질적 논리가 유발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폐해에 대한 포괄적인 가치론적 조망이 필요할 것이다. 삶 환경 매체의 대대적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영상 중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방면에 대한 심층적 인식제고가 요구될 것이다. 하드웨어적 측면이 디지털 기술의 공학적 이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매체 환경으로서의 디지털 영상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인문·예술학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디지털 논리 기반의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기술 확보의 노력이 앞서 갔다면, 향후로는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존재(存在)와 당위(當爲), 사실(事實)과 가치(價値)라는 근대적 이분법의 견지에서 볼 때, 지금까지 존재와 사실 측면의 기술공학적 하드웨어의 개발에 관심을 온통 쏟았었다면, 이제는 당위와 가치 측면의 도덕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찰이 시급히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체 환경의 대대적 전환이 가져온 변화의 넓이와 깊이를 내밀

하게 주목하려는 학문적 태도와 성숙한 비판적 대응, 그리고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영상 문화와 이미지 문명이 가져올 미증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성적이고 비판적인 담론의 구성이 시급하다. 당대 삶의 환경과 문화가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살아가는 실존적 모습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면, 오늘날 매체 환경의 영상 이미지는 분명히 문화와 환경의 중심에서 성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주된 매체 환경이 아날로그 논리에 기반을 둔 문자로부터 디지털 논리에 근간을 둔 영상으로 바뀔에 따라 나타난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가 도덕교육의 향후 진로 모색에 어떤 과제를 부과하는 것일까? 새로운 천년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영상 매체가 학생들의 삶을 전면적으로 에워싸 들어오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확산은 학생들의 사고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상의 삶과 문화자체를 변혁시키고 궁극적으로 가치 정향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매체 환경의 변화 물결 속에서 아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적응하고 있으며 심지어 변화의 물결을 선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이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되는 문자에 친화적인 자아보다는 디지털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에 보다 친밀한 자아를 지니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논리 기반의 영상과 친화적 관계의 삶을 살게 될 학생들은 도덕적 문제사태에 직면하여 아날로그 논리 기반의 문자보다는 디지털논리 기반의 영상에 근거한 도덕적 추론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압박해 들어오는 영상, 이미지, 미디어 문화의 본질인 디지털의 비트(bit) 논리가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도덕관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는 바가 없다. 즉, 도덕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이 가상공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도덕적 사고·추론·판단의 본질과 그 발현 현상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등한시하고 있다. 디지털 논리 기반의 영상 매체 문화가 가져다 줄 미증유의 영상 서비스에만 흥분하고 있을 뿐,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은 상당히 간과되고 있다. 사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도덕교육과 관련된 많은 현실적 난제들, 예를들면 사이버 윤리의 문제, 네티켓의 정립의 과제, 청소년들의 음란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성 윤리의 와해 등은 디지털 신호 기반의 영상 문화와 직·간접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의 문제를 현상적으로가 아니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영상의 비트 논리가 어떠한 성격의 것이며, 그 논리가 학생들의 도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한 내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로부터 매체 환경의 변화와 조화될 수 있는 도덕과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논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가치의식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 영상 매체가 도덕과 교육의 진로 모색에 어떤 과제를 부과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도덕과 교육의 문자매체 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될 디지털 논리 기반의 영상매체 위주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의적 가치 함양에 있어 영상매체의 활용 가치를 논의할 것이다. 셋째, 도덕과 교육의 영상 매체 중심적 접근의 시도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치론적 견지의 유의점 등을 분석하였다.

II. 도덕과 교육에서 영상 매체 중심적 접근의 필요성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영상을 주된 매체로 삼아 습득하게 된 학생들의 삶의 가치가 도덕과 교육의 향로에 어떤 과제를 부과하고 있을까. 즉, 문자 매체를 매개로 해서 형성된 가치 중심 사회로써 영상 매체를 매개로 해서 구성된 가치 위주 사회로의 천이(遷移)가 도덕과 교육의 활로 모색에 어떤 과제를 부과하고 있을까. 인류의 가치 형성과정을 되돌아 볼 때 도덕관의 확립에 있어서 혁신적 전환은 매체(media)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인쇄·문자 매체 문명의 지배 하에 있었던 기성 사회가 합리성과 과학성을 추구하는 도덕교육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이성적이고 자율적이며 기성체제 지향적 개인을 길러냈다면 현재 사회는 근대적 주체와는 다른, 심지어 그것에 대립되는 윤리성과 정체성을 지닌 인간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가치추구의 주도적 경향과 매체(media)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뉴미디어가 기존의 도덕교육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성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디지털 논리 기반의 영상매체의 사회적 저변화는 과거 정신과 물질, 인지와 정서의 이원론적 근대 도덕철학과 윤리학에 근거한 도덕과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살펴볼 때,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그 같은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까?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방법론은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반영의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로서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을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의식과 국가·민족의식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교육부a, 1997 : 86)라고 말하고 있으며, 교육방법론으로 “도덕 판단력과 가치 선택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주제별 탐구식 토의 기법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도덕 문제들을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지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

함으로써 도덕적 사고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a, 1997 : 90)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교수학습 방법론이 아직도 아날로그 논리 기반의 문자 매체에 의존했던 과거 방법론적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방법론에 매체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치 변화의 추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던 주요한 이유의 하나를 든다면 교수 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고수해 온 나선형 교육과정 구성원리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선형 구성원리는 근대의 선형적 논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 7차 교육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생활 환경 확대 원리의 근간으로 볼 수 있다. 생활 환경 확대 원리에 근간을 둔 교과 내용 편성이란 개인, 사회, 국가, 민족 그리고 우리의 특수한 생활환경인 분단에 따라 도덕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음을 말한다. 나선형의 선형적 논리에 따른 생활 환경 확대 원리는 교육부 고시 제7차 초 중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b, 1997 : 119-120).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본 방향을 대별해보면,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통일교육과 국가 안보교육을 핵심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구성은 내용의 범위 설정에 있어 생활환경 확대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성교육은 개인 생활 및 가정·이웃·학교 생활영역에 해당되며, 민주 시민교육은 사회생활 영역에 관련되고,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와 통일교육은 국가·민족 생활 영역에 배당될 수 있다. 변용권 역시 도덕 교과서가 생활환경 확대 원리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는 “도덕 교과서의 영역 구분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특성과 생활 경험에 부합되도록 생활환경 확대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2000 : 160)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서 나선형 원리에 따라 구성된 우리의 도덕 교과서가 지식 중심에 치우쳐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지 못하고 실제 생활과의 연결 가능성이 미약하며 일관된 윤리적 인식체계 확립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환경 확대 원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교과구성 원리는 아날로그 논리에 따른 선형적인 단선식 원리이다. 선형적인 단선식 원리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성과 아날로그 논리의 문자 매체에 의존한 교수·학습 모형으로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 추이를 교과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유용한 가치판단 능력과 실천적 의지를 제고시키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세구는 도덕교육 과정의 주제 중심적 접근을 제안하기도 한다. 즉, 도덕과 교육과정이 줄곧 사용해 온 생활영역 중심의 도덕과 교육과정은 실생활과 유리된 지식 위주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 시켰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나 도전감을 고취시키고 행동이나 실천과 연결될 수 있는 교과 수업 운영을 위해 개인 및 사회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한다(1999 : 6-8).

이와 같이 한국의 현대 도덕과 교육과정을 선형적인 단선식 원리에 따라 구성할 수밖에 없

있던 총론적 원인은 객관주의 교육관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적(modern) 객관주의 교육관에서 제시되는 교육목표는 전문가로서의 교사가 판단하는 객관적, 보편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중심과 토대의 역할을 하며, 학습자의 학습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습결과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의 역할을 한다. 사전에 설정된 목표는 교사와 학습자가 모두 지향하는 난공불락의 궁극적인 목적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과 중심을 전제한다(유영만, 1998 : 233). 또한 객관주의적 교육관에서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고 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되고 취급된다. 객관주의에 입각한 교수설계 방식에서는 학습 내용의 부적절한 부분이나 맥락을 제거하여 가능한 한 내용을 단순화하고 체계화하여 학습 요소들을 규명해내고, 규명된 요소들은 분석된 학습자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객관주의 교육관의 교육목표와 지식 개념을 반영한 교육과정은 자연히 선형적인 단선식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총론적인 근대적 교육관의 교육목표와 지식개념은 각론으로서의 현대 한국 도덕과 교육론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을까.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그것은 선형적 단선식 원리에 근거한 생활환경 확대 원리로 제시된다. 도덕교육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기준과 중심이 되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 생각되는 가치를 생활환경을 확대시켜 가는 가운데 취사선택하여 도덕과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교사는 문자매체에 의존하여 학생들에게 인지적 교수방식으로 전달하며, 학생들은 인지적으로 잘 수용하여 우수한 학업성적만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교육 목표의 측면에서 볼 때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단계별 교육과정, 재량활동의 활용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통해 모더니즘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근대주의의 선형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 맥락적 사고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비판받는다. 즉,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원리만을 단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인차를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도덕과 교육의 경우도 이러한 비판의 사정권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이왕주는 이러한 점을 주목하고 거시적 교육철학의 관점에서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나선형 모델은 어쩌면 도덕 교과내용의 빈곤을 호도 하려는 위장술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망각 곡선의 골에 기대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우려먹으려 할 때 이 모델은 얼마나 편리한 것이냐. 왜 내용의 빈곤을 정직하게 인정하려들지 않는가. 왜 새로운 분류표를 요구하는 도덕과의 메타 교과적 특성에 대해 눈떠보려 하지 않는가”(2000 : 10)라고 통렬한 비판을 가하면서, 나아가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관한 현철들의 거대담론으로부터 가치나 덕목을 연역해내고, 그것들의 내면화 전략을 고안하고, 그것을 교과과정으로 프로그램화하고, 실행하고, 그 약 효과가 떨어지면 여기 저기를 땀질 수선하고 차수를 바꿔 재 프로그램화하는 식으로 우리는 일곱 번이나 개혁한 교과과정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는

차수를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약효를 기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2000 : 5)라고 주장한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모더니즘의 나선형 단선식 교육과정 구성원리에 의거한 도덕과의 생활환경 확대원리는 근대 자유주의 도덕교육론의 형식주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 자유주의 도덕교육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칸트의 형식주의 윤리학과 콜버그의 형식 중심주의 도덕교육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도덕교육론은 이성, 형식, 문자, 인과, 선형논리 등과 이론적 친화성을 지닌다. 따라서 감정, 내용, 비약, 파격, 영상, 비선형 논리 등이 중시되는 영상매체 기반의 ICT 활용 도덕과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나선형적 교육과정 원리와 문자매체 기반의 교수·학습 방법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교육부가 ICT 활용 학교 교육 활성화 계획안을 추진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교육부 인적 자원부는 추진배경으로 “①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국가와 사회 각 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혁을 선도하고 정착시킬 인재 양성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부각됨 ②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종합 추진계획’이 2000년도 대통령 신년사에 의해 조기 완료되어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이 정비됨 ③학교의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체제와 내용 개선이 대두됨”(2001 : 1)이라고 밝히고 있다. 목영해는 이와 관련하여 “자유주의적 도덕교육론의 중핵이 되는 도덕적 사고력이란 정보화 이전 산업사회의 중요 정보원이었던 활자 서적의 독해를 통하여 길러지는 사고력으로서, 선형적 논리에 입각한 사고는 단순하고 소박한 일, 관념적인 학술적 논의에는 유효할지는 몰라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도덕적 상황의 일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도덕적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선형적인 도덕적 사고력으로는 실제현실과 가상현실의 관계와 같이 비 선형적으로 전개되는 정보사회의 도덕성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2000 : 212). 물론 교수 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에 걸쳐서 적용된 나선형식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원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의 부정 일변도적 비판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학문적 태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격렬한 비판을 무조건 배격하는 것 또한 도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향적 방향의 모색이라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상반된 관점으로부터 확인 할 수 있는 점은 기존의 나선형 단선식 도덕과 교육 과정만으로는 학생들의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가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 도덕과 교육의 개선 방향을 매체 전환의 관점에서 찾아 볼 경우 학생들의 급격한 가치 변화의 주된 원인이 바로 아날로그 논리적인 문자 매체 환경으로부터 디지털 논리적인 영상 매체 환경으로의 급속한 전환에 있다면, 그러한 전환의 추이에 조응할 수 있는 쪽으로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도덕과 교육은 가치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면한 시대가 부과하는 가치론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며,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윤리적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디지털 영상 매체 환경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침언하면, 쿠텐베르크 이후 형성된 문자 중심의 아날로그 매체 환경이 영상 위주의 디지털 매체 환경으로 대체되면서 현금의 전자 테크노 시대의 추이는 탈 문자화와 영상 이미지화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20세기의 황혼 녘을 현란하게 수놓았던 영상 이미지의 '디오니소스 축제'는 생태계의 위기, 노동의 종말, 정신의 궁핍, 인간성의 상실 등과 같은 인류 장래의 어두운 전망과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되고 있다. 매체 순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영상의 시대에서 활자의 시대로, 다시 문자의 시대에서 영상 이미지의 시대로 순환하는 듯하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한 영상과 문자의 일차원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 존재 방식과 사유 형태를 재구성하고 심지어는 지식의 패러다임을 갱신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도덕철학과 도덕교육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 갱신의 높은 파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의 존재 양식의 혁명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의 하나를 꼽는다면 도덕철학과 도덕교육의 부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 삶의 사실적 존재양식의 변화는 당위적인 가치론적 사고의 전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덕철학과 도덕교육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내는 지름길은 기존의 도덕교육 이론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핵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도덕교육론을 지배했던 아날로그 논리적인 문자 매체 환경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직시가 요구되며, 나아가 디지털 논리에 토대를 둔 영상 매체 환경의 본질에 대한 성찰적 파악이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직시와 파악의 토대 위에서 도덕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제까지 도덕과 교육에서 영상매체 활용의 필요성을 기존의 교육과정 구성원리와 연결 지어 고찰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도덕과 교육에서 영상매체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당위성을 근래의 도덕교육이론의 전반적 경향과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III. 통합적 접근에 의한 정의적 가치의 배양과 영상 매체의 활용

오늘날 한국 사회는 아날로그 신호 기반의 문자 매체 중심사회에서 디지털 신호 기반의 영상 매체 중심 사회로 급격히 전환됨으로써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상당한 가치 부조화 현상을 노정 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치 부조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식 정보사회의 바람

직한 가치관으로서 기존처럼 도덕적 전체성과 보편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가치의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개별성을 존중하는 도덕관과 윤리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 도덕교육의 방향도 학생들에 대한 가치의 직접적 내면화보다는 피교육자의 능동적 역할을 통해 다양한 가치의 이해와 실천을 가능케 하는 도덕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 중심적 도덕교육이나 덕목 주입적 도덕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의적 가치 판단 능력과 실천의지도 동시에 함양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통합적 도덕교육 방법론으로서 영상매체를 활용한 도덕 교육적 접근이 그 동안 간과되었던 학생들의 정의적 가치 영역의 함양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도덕과 교육에서 정의적 가치 함양의 요구

4차 교육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까지 우리의 도덕과 교육이론은 콜버그로 대표되는 인지 발달론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콜버그의 인지 중심적 도덕교육론은 근대 자유주의 도덕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다. 자유주의 도덕철학에서 도덕적 판단과 실천은 논리적 연관성과 인과성에 근거한 개인의 합리적 가치관, 그리고 인지적 도덕성의 한계 내에서 다루어졌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이성과 인지 중심적인 자유주의 도덕철학이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은 고대 그리스 이래의 감성과 이성에 대한 오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결과된 것이다. 서구의 오랜 전통 속에서 감정은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며, 지적 판단과 동등하게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정에 기초를 두고 내려지는 결정은 하등 동물의 속성으로 비하된 반면에 이성은 인간과 같은 지적 존재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되었다. 도덕철학에서 이성과 인지 중심의 이러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칸트에 의해서 집대성된다. 그는 서양 윤리학사에서 감정 혹은 정의의 영역을 평가 절하시킨 대표적 학자이다. 그는 이익, 욕구, 심리적 경향성을 포괄하는 감정, 충동, 정념을 이성적인 자율적 도덕판단과 실천의 장애로 요소로 보고, 윤리의 영역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콜버그는 피아제를 계승하여 칸트에 의해서 집대성된 자유주의적 도덕철학을 도덕교육에 응용하여 인지 발달론적 접근으로 정립시킨다. 그는 개인의 인지발달과 도덕발달의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을 배타적이고 유일한 분석단위로 상징함과 동시에 개인의 이성적 논리와 합리적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난 가치판단과 행위는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도덕적 문제 사태에 직면한 개인적 도덕 행위자의 마음속에는 자유주의 도덕관의 인지적 도덕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가치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 영역은 이성과 감정,

인지(認知)와 정의(情意)라는 근대적 이분법의 견지에서 본다면 주로 감성이나 정의의 부분과 연관된 것들로서 사실 그 동안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하찮은 것으로 평가 절하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자들 사이에 감정과 정의 영역의 가치에 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명은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솔로몬(Solomon, R.C.)은 이성 중심주의자들의 감정에 대한 전통적 편향을 비판하면서 감정이야말로 이성 자체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감정은 그 자체로서 합리적인 것(그러기에 때로는 불합리하기도 하다)이다.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다. 하이데거의 설득력 있는 은유적 비유에 따르면, 감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장단을 맞추는 방식이다”(1993 : viii-ix)이라고 주장한다. 오우클리(J. Oakley)는 감정을 인식, 욕구, 정서의 세 가지 요소의 총합체로 파악하면서, 우리가 도덕적 문제 사태에 당면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바람직한 행동을 하여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992 : 2) 피터스(R.S. Peters)는 지적인 발달과 정서적인 발달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진리에 대한 관심은 일종의 감정이기 때문에 지적인 것이 정서적인 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1970 : 50) 이러한 현상은 현대 도덕교육의 전반적 경향으로서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에서 감성 영역과 정의적 가치 함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도덕교육은 가치교육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지와 정서,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 직관과 논증, 욕구와 가치, 신념과 성향 등의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 한 소기의 교육적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의 도덕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도덕교육이 지닌 이러한 복합적 측면을 주목하고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방안으로 그 동안 간과되었던 정서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림맨(M. Lipman)은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에서 정서적, 정의적 영역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도덕교육에서 정서적인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를 따로 나누는 것은 학습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지성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개념은 정신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성은 인간의 어떤 형태의 행동에서나 자신의 행위 속에, 자신의 예술적 창조 속에, 그리고 자신의 반성이나 표현 속에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1980 : 162). 이 밖에도 길리건(Gilligan, 1977)은 정의와 권리라는 인지적 도덕성에 기반을 도덕 교육의 자유주의적 접근을 비판하고 보살핌이나 민감성, 그리고 여성성과 같은 정의적 도덕성에 토대를 둔 배려윤리적 접근을 주장한다. 키렌 이간(K. Egan)은 정의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공상력에 내재된 정의적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피아제 이론에 근거한 도덕 교육적 접근이 공상과 상상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을 소재로 하여 논리적인 수리적 형식을 밝혀내는데 집중함으로써 도덕교육의 인지적 접근을 위해 상상과 공상의 도덕 교육적 활용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한다. 이어서 그는 이야기라는

형식과 상상력을 결합시킨 도덕 교육적 접근을 통해 정의적 가치 함양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다(1986: 23-24). 이로부터 더 나아가 태펀(Tappan, M.B, 1989)과 브라운(Brown, L.M, 1989)은 통합적 접근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내러티브(narrative)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을 제시한다. 그들은 도덕적 갈등 사태 제시에 의한 도덕적 판단력 측정에만 골몰하는 콜버그류의 인지적 도덕 발달론과 감화적 이야기의 제시를 통해 도덕적 습관화에만 치중하는 인격 교육론자들의 내러티브 접근은 도덕교육에 있어 정의적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신들의 내러티브 스토리 텔링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도덕 이야기를 지어내게 하는 학생 위주의 스토리 텔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도덕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구분되어 왔던 인지, 감정, 행동의 세 영역의 통합을 시도한다. 즉,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에서 세 영역은 밀접한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으며 이 중에서 도덕적 경험과 도덕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의, 감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러티브 스토리 텔링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의 도덕교육 연구의 공통된 경향은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통합적 접근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그 동안 간과되었던 정의적 요소를 들고 있다. 도덕과 교육의 목표가 지성의(知情意) 조화로운 통합적 인격의 함양에 있다는 대전제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도덕교육에서 통합적 접근의 노력이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도덕 교육적 접근의 동향에 조응하여 인지와 정의의 통합적 도덕교육을 천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마음이 인지적 영역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이나 의지적 영역과의 유기적 구성물이라는 전제하에 이들의 유기적 관계에 관한 포괄적 인식이 반영된 통합적 도덕 교육과 방법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도덕과 교육에서 통합적 가치의 제고를 위한 교육 방법 개선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당면한 시대의 의사소통의 지배적 매체에 관한 고려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측면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없는 도덕교육 방법은 현실성, 당위성, 타당성, 정합성의 측면에서 비효과적 접근이 될 개연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2. 영상 매체 활용의 교육 방법론적 의의

도덕과 교육에서 정의적 가치 함양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한 방안으로 영상매체의 방법론적 활용은 어떤 긍정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도덕과 교육에는 현실적 당위성, 이론적 정합성, 그리고 실질적 타당성을 갖춘 통합적 수업 방법론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 모색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는 당면한 시대의 중심적 가치, 이 가치

를 받아들이는 문해(literacy)의 방식,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형성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배적 의사소통 매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에 관한 참작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의 실질적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감성과 이성, 인지와 정서의 조화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며, 기존의 일방 전달식 주입식 문해보다는 상호 교류의 다원적 문해관(Multi-literacies)에 근거한 구성주의적 문해가 주목받고 있고, 의사소통 매체로서 문자(letter)보다는 영상(image)이 선호되고 있고, 교육방법으로 구성과 교화의 통합적 접근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New London Group 은 다원적 문해의 개념에 대하여 “다원적 문해 개념은 텍스트가 시각적, 청각적, 공간적 그리고 행위적인 것이 되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복잡성을 잘 설명하는 용어이며, 전지구적 문화 경제의 개방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시민으로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잘 표현하는 개념이다”(1996 : 66)이라고 말한다. 다원적 문해 개념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문해 교육의 구성주의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히베르트(E. H. Hiebert)는 구성주의적 문해관에 근거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에 관해 “21세기 도래의 즈음하여 교사들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원성의 계속적 증가, 다양한 문해력의 사용을 요구하는 학생과 사회가 그 도전의 대표적 예이다. 특히 모든 학생들이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수준의 문해를 획득케 하기 위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문해 교육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의 능력을 길러 줄 것이다(1991 : 3)”라고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다원적 문해관에 근거한 문해교육의 구성주의적 접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매체로서 디지털 영상 매체와 하이퍼텍스트가 방법론적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요소는 각각의 시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두된 것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동시에 등장했기 때문에 상호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교육적 접근이 우리의 도덕교육에 주는 교육 방법적 함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도덕교육의 전체적 경향을 살펴보면, 당면한 시대의 중심적 가치로는 내용, 덕목, 형식, 원리, 이성, 인지 편향적 도덕보다는 감성과 이성, 인지와 정서의 통합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며, 문해의 방식으로는 전체론적 문해보다는 구성주의적 문해와 다원적 문해가 주목받고 있고, 지배적 의사소통매체로는 문자(letter)보다는 영상(image)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나아가 이러한 삼자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론으로 구성과 교화의 통합적 접근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즉, 우리의 도덕교육은 이전에 간과 하였던 도덕성의 정의적 속성, 정서적 특성, 감성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으며, 교육방법으로 이를 교육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텍스트 문자매체에 기반을 둔 기존의 문해가 도덕성의 인지, 형식, 원리 아니면 교화, 덕, 내용 가운데 어느 한 측면에 경도된 감이 있으며, 그에 따른 도덕교육 방법 역시 인지적, 형식적 접근 아니면 덕목적,

내용적 접근 중의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의 유기적 관계가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정의적 가치를 함양시키려는 도덕교육 방법론 모색에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교육적 효과 제고에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영상매체와 하이퍼텍스트는 의사소통과 가치형성의 지배적 매체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발달된 디지털 영상 매체의 대중화와 그에 따른 하이퍼텍스트 문해(literacy) 방식의 출현은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있어 한편으로는 도덕철학에서 감성과 정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교육에서 정의적 가치의 함양을 위한 영상매체 활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도덕교육의 디지털 영상 매체 중심적 접근은 아날로그 문자 매체 중심의 자유주의적 도덕교육론에서 주변적인 영역으로 방기되어 있었던 요소들의 복권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주변요소의 복권은 도덕교육의 통합적 접근, 그 중에서도 정의적 가치 함양을 위한 대안 모색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주의 도덕교육론의 이성적인 합리주의적 접근은 매체의 측면에서 보면 문자를 지배적 매체로 삼아 논리적인 인지적 도덕성의 함양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노출시켰다. 대표적 예로 인간의 감성과 정의적 영역을 등한시함으로써 한 쪽으로 편향된 도덕 교육론에 머물고 말았다는 비판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매체의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 영상 전송 기기의 대중적 이용은 우리 사회를 텍스트와 문자 중심의 사회에서 하이퍼텍스트와 영상 이미지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러한 매체의 전환이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중핵 가치의 표현 양상에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유발함과 동시에, 나아가 학생들의 도덕관이나 윤리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도덕적 판단과 가치표현 행위까지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감성과 정의적 영역이다. 따라서 통합적 도덕 교육론 모색에 있어 감성(感性)과 정의(情意) 범주의 반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의적 가치의 함양을 위한 방법적 접근에 있어 디지털 논리 기반의 영상매체는 아날로그 논리 기반의 문자매체에 비하여 감정과 정의 영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훨씬 유용하다. 따라서 도덕교육에 있어 문자보다는 영상과 이미지를 지배적 매체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판단과 실천 및 도덕적 갈등 상황의 원활한 해결 방안 모색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문자 매체는 도덕적 인지성(認知性)을 독립변수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적 도덕교육론과 친연성(親緣性)을 가질 개연성이 강하고, 영상 매체는 정의성(情意性)을 독립변수로 여기는 배려의 도덕교육론과 친화성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 국가와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복잡한 도덕적 문제 사태나 다원적 가치갈등·충돌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도덕성과 아날로그 문자 매체 중심적 접근에만 의존하

지 말고, 도덕성의 정의적 측면을 중시하는 영상 매체 중심적 접근과 배려의 도덕교육론에 대한 고려도 동반된 통합적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도덕과 교육의 성공 여부의 상당 부분은 디지털 영상 매체를 활용한 도덕교육의 수행 즉, 디지털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감성과 이성, 인지와 정서가 조화된 도덕교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우리는 디지털 영상 매체가 각자의 삶을 선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디지털 영상 매체가 조형해내는 가치 정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있어 디지털 영상 매체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위 지식 정보화 사회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contents)라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구축하고, 각종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한 정보로의 접근 및 해석 방식의 소통을 통해서 가치 정향과 그에 따른 행위양태를 창출해 낼 것이다. 이러한 가치 정향과 행위 양태의 발생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는 디지털 영상 매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영상을 매개로 해서 형성될 가치나 도덕의 실제 규명과 그것을 교육하기 위한 도덕교육의 방법론적 접근에서 가장 효과적인 매체 역시 디지털 영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영상 매체 시대의 도덕교육론을 모색하는데 있어 인간 마음의 구성요소에 대한 다차원적인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도덕과 윤리는 인간의 마음이 연관을 맺고 있는 이성과 인지 그리고 감성과 정서를 포함한 다양한 인소(因素)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영상 매체를 이용한 도덕교육에서 디지털 영상 매체가 가진 이러한 긍정적 의의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근대 자유주의 도덕교육론의 이원론적 인식론으로는 다루기 힘들었던 이성과 감정,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도덕교육을 모색함으로써 자유주의 도덕철학의 이성과 인지 위주적 도덕 교육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V. 영상매체 이용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가치론적 견지의 평가

하지만 앞에서 논의했던 도덕과 교육의 방법론적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개선방향을 학교 교실 수업에 연계시켜 현실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은 대안적 혹은 보완적 방법론이 미치게 될 가치론적 영향에 대한 윤리적 견지의 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도덕과 교육의 영상매체 중심적 접근이 내실 있는 방법론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가치론적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른 모든 교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과 교육에서도 영상매체 중심의 학습 효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기대는 ICT나 멀티미디어를 도덕과 교육에 활용하여 개인의 조건에 맞는 내용을 선택·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훨씬 제고시킬 수 있다는 바람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하여 ICT를 활용한 도덕과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현실적 중압감 때문에 도덕과 교육의 영상매체 중심적 접근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강박관념이 유발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 같은 비판적 여론은 도덕과 교육의 무차별적인 영상 매체 중심적 접근이 학생들의 심층적인 도덕적 사고력과 실천의지의 함양에 장애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가치론적 견지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Neil(1995)은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에서 사고의 과정을 배운다 하더라도 개념 구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지 응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교육에서의 컴퓨터의 사용은 인성의 모델을 컴퓨터에 두고 이를 목표로 하여 교육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즉,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영리한 기계인 컴퓨터를 인성모델로 삼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마음이 컴퓨터화 되도록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컴퓨터와 같은 인간을 만드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정탁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출판문화 시대의 ‘선형적 명료성’은 과거 인쇄매체의 등장으로 소멸되었던 ‘총체적 즉각성(feeling of all-at-onceness)’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체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촉각적이며, 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2000 : 46)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식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한선형적 명료성의 소멸과 총체적 즉각성의 부상은 도덕교육이나 가치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아날로그 논리적인 문자로부터 디지털 논리적인 영상으로의 매체 전환에 따른 총체적 즉각성의 부상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론적 당위론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그러한 현상은 도덕교육의 부문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아날로그 문자매체에 의거한 근대적 가치관과 도덕교육에서 논리적으로 발전하는 도덕적 추론의 과정이 중시되었다면, 영상매체 중심의 포스트 모던적 가치관과 도덕교육에서는 도덕적 일반화·추상화의 과정이 등한시된 채 가치의 인식과 판단, 그리고 실천에 있어 전면적, 전일적, 총체적 성격이 강조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의 관건은 청소년들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있어 가치론적 전일성과 전면성, 그리고 총체성이 지닌 긍정적 측면이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측면, 예컨대 충동적이고 순간적이며 표피적인 가치판단에 따른 행위 유발의 개연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대중문화의 집중세례를 받은 청소년들은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있어 발달론적인 과정, 논리적 절차,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고려를 생략한 채 한 순간 직감적(直感的)으로 다가와 자신들의 가치판단과 도덕적 실천을 결정 지워

버리는 영상 이미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도덕적 문제 사태의 본질을 천착해 보면 이러한 매체전환의 부정적 영향이 강하게 묻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육의 방향을 가치론적 견지에서 모색함에 있어 영상 매체를 활용한 도덕교육의 현실적 필요성에만 집착하고 부작용을 간과한 채 무비판적으로 접근할 경우 본래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전도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홍은숙은 이러한 전도를 ‘목적 혼동의 오류·목적 망각의 오류’라고 비판한다. 즉, “정보화 활동에 내재된 가치를 모를 때, 그것은 위험한 무기가 되어 우리가 목도하는 온갖 역기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의 폐해를 줄이고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은 무엇보다 먼저 정보화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2000 : 194)고 주장한다. 초등 도덕과 교육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 영상매체 중심적 접근은 꼭 필요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가치문제에 관한 추상화·일반화의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의 도덕과 교육에 있어 디지털 영상 매체를 활용한 도덕과 수업은 교육적 효과의 수월성을 훨씬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애니메이션(animation)을 이용한 도덕과 수업은 기존의 토론식, 발표식, 강의식 수업에 비해서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와 집중도를 높여 수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 매체 위주의 수업은 가치론적 견지에서 접근할 경우 Neil의 지적처럼 도덕적 사고의 과정을 개념 구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지 응용하는 수준의 표피적 접근만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김정택이 언급한 것처럼 총체적 즉각성의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초등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초등 도덕과 수업의 영상 매체 중심적 접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지 발달적 접근에 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자기 생활주변의 도덕적 문제상황에 관한 이야기와 토론을 통해 가치론적 자기수정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의 공유적 가치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덕적 문제 사태에 대해서 교사나 또래 학생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에 동료 학생들과의 도덕적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 사고의 변증법적 지향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 도덕과의 평가 결과는 계량화된 수치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크게 개의치 않고 다양한 형태의 도덕과 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각 과목당 담당교사가 정해져 있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한 명의 담임 교사가 대다수의 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가치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도덕과 교육의 효과를 보다 제고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도덕과 수업에서는 중·고등학교의 도덕과 수업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가치판단과 도덕적 실천의 성찰적·맥락적 접근이 이

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영상매체 시대의 도덕과 교사는 도덕과 교육의 영상 매체적 접근의 장단점과 문자 매체적 접근의 장단점에 관한 분별적 인식을 갖고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도덕과 수업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요즘 청소년들의 가치 담지적 행위와 그 행위를 발생시키는 가치 환경의 본질적 논리를 내밀하게 살펴보면 기존의 자유주의 도덕교육론, 공동체주의 도덕교육론, 통합적 도덕교육론 등에만 의존해서는 학생들에게 현실적 가치변화의 추이를 인식시켜서 실천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직시할 수 있으며, 그 같은 한계 유발의 중심에 디지털 논리 기반의 영상이라는 매체 환경적 요소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디지털 영상 매체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 논리의 영상 매체적 가치와 아날로그 논리의 문자 매체적 가치의 사이의 관계 설정과 의미부여에 대한 논쟁이 도덕교육론의 패러다임 전환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도덕과 교육에서 아날로그 논리 기반의 문자 매체 중심적 접근의 한계가 무엇이고, 도덕과 교육의 디지털 논리 기반의 영상 매체 중심적 접근의 당위성과 그러한 접근이 도덕교육의 개선 방향에 줄 수 있는 함의가 무엇이며, 또한 도덕과 교육의 차원에서 원용(援用)하여 새로운 도덕교육론의 방향 모색할 경우 가치론적 견지 또는 도덕철학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였다.

포스터 모던의 교육관은 강요된 묵시적 합의창출을 통한 조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변부에서 밀려나 소외되었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전체 상황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와 시사점을 함의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다양한 상황에 근거하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관점을 인정해주는 '다름'과 '차이'를 환영한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환경을 에워싸고 있는 대표적 화용어(話用語)로는 영상, 이미지, 디지털, 그래픽, 애니메이션, 인터넷 등을 들 수 있다. 이 용어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 가치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의 가치판단과 선택, 그리고 행동과 관련해서 만큼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가치 변화의 추이가 도덕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생활환경 확대 원리에 따라 취사선택해서 아날로그 문자 매체 중심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가르침으로써 인지적 도덕성의 함양에 치중하였던 도덕교육의 재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인지와 정의, 영상과 문자,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톰과 비트의 이원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영상 매체 시대의 도덕과 교육의 전략 수립과 이러한 전략을 교실 수업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론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적 접근의 변화에 있어 그러한 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의 부작용에 관한 가치론적 견지 혹은 도덕철학적 견지의 평가나 고려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만이 진정한 의미의 바람직한 도덕교육 방법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미래 지향적인 도덕과 교육은 학생간의 인간적인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교실, 따뜻한 눈빛과 마음이 가득 찬 열린 교실, 서로가 상호간의 마음을 읽어 낼 수는 있는 교실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 항상 기다려지는 수업, 압박감과 부담감 대신에 기대감과 생동감이 넘치는 수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향적 도덕과 교육은 교수-학습 모형, 수업방법, 학습 과정안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덕과 교육의 방법론적 접근의 이러한 포괄적 개선 방안 모색의 중심에 디지털 영상 매체 활용 수업 안이 놓여야 할 것이며, ICT를 활용한 디지털 영상 매체 중심적 접근은 유익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영상매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공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도덕과 수업,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교육적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도덕과 수업, 따뜻함과 생동감이 넘치는 도덕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탁(2000), 굿바이구텐베르크, 새천년.
- 강숙희(1997),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학습환경으로서의 매체활용, *교육공학연구*, 제13권 제1호.
- 교육부a(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b(1997), *제7차 초 중등 학교 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교육부 교육정책 담당관실.
-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사 ICT활용 교육 연수교재 CD*, 교육인적자원부.
- 목영해(2000), 디지털 정보화 시대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 *도덕교육연구*, 제12권 2호, 한국도덕교육학회.
- 변용권(2000), 남북한 도덕과의 통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 박장호(1999), *윤리의 응용과 도덕교육*, 경성대 출판부.
- 박병기, 추병완(1996), *윤리학과 도덕교육*, 인간사랑.
- 박진환(2001), 도덕윤리교육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덕·윤리과 7차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윤리교육학회 2001년 하반기 학술대회보.
- 박부권(2000), 기존교육 개념의 탈맥락성과 재맥락화를 위한 시도, *교육사회학연구*, 제10권 제3호.
- 배식한(2000, 10), 디지털시대의 책 : 텍스트에서 하이퍼텍스트로, *교육마당* 21.
- 백영균(1999), *웹 기반 학습의 설계*, 서울 : 양서원.
- 손준중(2000), 정보사회의 문해 이해 :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Vol.6, No.1.
- 유영만(1998),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공학 :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공학적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 *교육공학연구*, 제14권 제3호.
- 윤현진(1998), 도덕·윤리과의 윤리학적 접근론, *도덕윤리과교육*, 제9호,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 이왕주(2000), 도덕교육에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서사도덕, 도덕·윤리과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윤리교육학회 2001년 하반기 학술대회보.
- 이미나(2000), 정보네트워크사회에서의 학교의 재맥락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0권 제2호.
- 정대현외(2000), *인문학으로서의 영상 문화학 : 이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의 나무.
- 정영애(1997), 정보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딜레마, *교육사회학연구*, Vol. 7, No. 3.

- 정세구(1999), 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주제중심 내용체계 개발 - 제 8 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실험적 시안 개발,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제 11 호.
- 정보주(2001), 어린이 철학에 기초한 도덕교육, *초등도덕교육* 제7집, 125 - 152.
- 최홍성(2000), 웹 기반 가치탐구 수업이 도덕판단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논문.
- 홍은숙(2000). 정보화 사회를 위한 윤리교육 : 공동체적 접근, *도덕교육연구* 제12권 2호.
- 한명희(2000),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과 인간상의 문제, *교육사회학연구*, 제10권 제2호.
- 황경식(1997),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 Elfrieda H. Hiebert, Introduction, E. H. Hiebert, ed., *Literacy : for a Diverse Society*,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Press. 1991. p. 3.
- Gilligan. C(1997), In a differa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 481-517.
- Hoffman M. L.(1976), Empathy, role-taking, guilty, and development of altruistic motives, In T. Lickona(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ur*, *American Psychologist*, 34, 958 - 966.
- Jack R. Fraenkel(송용의 역, 1994), *가치탐구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교육과학사.
- J. Oakley(1992), *Morality and the Emotions*, London : Routledge.
- Kieran Egan(1986), *Teaching as story telling : An alternative approach to teaching and Curriculumlun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hleberg L.(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 Harper & Row.
- New London Group(1996), *A Pedagogy of Multiliteracyes :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 Review*. Spring.
- Neil M.(1995), Computers, thinking, and school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Brook J. & Boal L. *A virtual life : The culture and politics of information*, SanFranciso : City Lights.
- Metcalf. Lawrence E. (정선심의 역 1994), *가치교육, 철학과 현실사*.
- Matthew Lipman, Ann M. Sharp and Frederick S. Oscanyan(1980), *Philosophy in the Classroom*,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1980.
- M. Peters(1995), Critical Literacy and Digital Texts, *Educational Theory*, Vol.46, No.1
- Peters, R. S(1981)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London : George Allen &Unwin.
- R. C. Solomon(1993), *The Passion : Emotion and the Meaning of Life*,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 R. S. Lazarus & B. N. Lazarus(정영목 옮김, 1996), *감성과 이성*, 서울 : 문예출판사.
- Tappan M. B.,(1989), Stories lived and stories told : The narrative structure of late adolescent mor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al Review*, 32, 300-315.
- Tom L.Beauchamp(1982), *Philosophical Ethics : An Introduction to Moral Philosophy*, McGraw-Hill Book Company.

* 논문접수 2003년 1월 29일/ 1차심사 2003년 9월 20일 / 2차심사 2004년 2월 10일

* 이종훈: 부산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출강 중이며 주요논문으로 「유학적 인륜관의 도덕교육적 함의」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도덕교육적 함의」 「장재 심통성정론」 등이 있다.

* e-mail: hb973@hanmail.net

Abstract

The ethics educational implication of an image learning media in moral education

Lee, Jong-heu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and improvement method of moral education based on the digital image media which influences upon value consciousness, moral judgement, and moral behavior of recent students. Namely, I considered kinds of roles in the teaching model of the moral education based on the digital image media play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existing limits of moral education based on analog letter media.

This study was as follows : Firstly, I studied the adequacy of image media central approach in moral education studies. I discussed how different the moral education method theory based on an analog letter media is from the one based on a digital image media.

Secondly, I came to understand that which one between the digital image media and a analog letter media is closer to the moral education theory of modern liberalism.

Thirdly, I analysed which kinds of advantages a methodical use of hypertext and digital image media could have for cognitive value through the integrate moral educational approach.

Fourthly, I discussed how the methodical approach based on digital image media can be useful for emotional values through integrate access to moral education.

Finally, I discussed the estimation from a moral viewpoint of the negative aspect which digital image media central approach could influence students in moral education.

* Department of mor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I considered the evaluation from an ethical viewpoint of the bad influence which image central approach as moral education method might affect student's values formation

Key word : digital image, values formation, analog letter, media, moral education, hypertext, methodical approach.